



90년 골라잇 투쟁의 합성이 서린 대우조선 현장에서

## 역사의 물결따라 노동의 숨결따라

'99 금속연맹 「노동운동 답사 교육」 1진 보고서

손낙구

민주노동 교섭실장 · 전 금속산업연맹 교섭실장

**금**속 노동자들이 노동운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투쟁 주역들의 생생한 증언을 곁들인 노동운동 답사 교육을 시작했다. 민주노동 금속연맹은 부산·경남지역 22개 노조 조합원 32명과

중앙·지역 사무처 간부 등 모두 37명이 참가한 가운데 '99 금속연맹 노동운동 답사 교육 「역사의 물결따라 노동의 숨결따라」(이하 답사 교육으로 줄임) 제1진 교육을 다녀왔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서 시작해서 1999년까지 백여년에 걸친 노동자 민중 투쟁의 현장과 열사 묘역을 둘러보고, 전 태일 동지 이승철·80년 5월 끝까지 도청을 지켰던 노동자 정항자·'살아있는 빨치산' 정운창 선생을 비롯해 직접 투쟁했던 주역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나 자신과 노동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금속연맹은 올해 하반기 안에 모두 다섯 차례 답사 교육을 다녀올 예정인데 이번이 그 첫 번째였다. 기획할 때부터 1진 마무리 까지 기대도 컸지만 '과연 잘 될까' 걱정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1진 답사를 마치고 난 지금은 걱정은 많이 가시고 밀고 나가길 잘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더 큰 게 사실이다. 아직 1진이나 성급하게 결론 짓기는 어렵지만, 답사 교육 방식이 노동운동 간부들의 의식과 결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느낌이다.

답사 교육 준비와 진행과정·평가를 때로는 있는 그대로, 때로는 개인의 감상을 섞어 정리해본다. 아무쪼록 더 나은 노동교육 방법을 찾고 있는 여러 동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 1. 역사 현장에서 생생한 교육을

### 6개월간의 준비

금속연맹이 노동운동 답사 교육을 기

획한 것은 올해 2월 6일 선거를 거쳐 2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딱딱한 강의식 교육보다는 직접 투쟁 현장을 돌아보고 투쟁 주역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간부 교육을 해보자는 조직 내부의 문제제기를 발판으로, 중앙 교육선전실에서 거칠지만 기획 초안을 잡아 4월에 열린 전국 교선실 회의(중앙과 지역본부 열 곳에서 일하는 교선 담당자들이 달마다 한 차례씩 여는 회의)에서 첫 토의를 거쳐 '한 번 해볼 만 하다'는 의기투합을 보았다. 예산문제가 걸렸지만 다행히 국제금속노련(IMF) 지원금 1,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참가자 한 사람이 육만원씩만 내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5월회의에서는 중앙과 지역본부 교육 일꾼 5명으로 답사 교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따로 할 일을 나누고 분야별로 자세한 조사와 계획을 짜나갔다. 몇 차례 토론을 거쳐 교육방식의 뼈대를 다음으로 잡았다.

- 전국 버스 여행
- 노동자·민중투쟁의 주요 현장 돌아보기
- 살아있는 투쟁 주역들의 생생한 증언
- 노동운동과 개인의 과거·현재·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강의
- 비디오와 자료로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그리고, 영남·중부호남·수도권 등

권역별로 묶여 인원이 많은 영남과 수도권은 두 번으로 나눠 가는 것으로 하여 총 5진까지 돌고, 자기 지역에서 출발하되 결국 돌아보는 곳과 교육내용은 같게 하기로 하였다. 6월말에는 3달에 걸쳐 준비한 내용을 종합해 정식으로 연맹에 추진 경과 보고서를 내고, 7월부터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지역본부마다 자기 지역의 주요 싸움터·맛있는 음식·농치기 어려운 경치 등을 자세히 조사했는데, 가볼 곳이 너무 많아 눈 딱 감고 쳐놓기가 쉽지 않았으나, 3박4일이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둘러볼 곳을 추리고 또 추렸다.

노조마다 민주노조의 내일을 짚어질 일꾼들로 가려 뽑아 답사 교육이 실제 참가자에게 인생과 운동을 돌아보고 선배 동지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더 힘을 내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참가자들을 가려 뽑기로 했다.

7월 중순에는 작은 책에서 '아름다운 저항'을 펴낸 기념으로 울산지역 노동현장을 답사한다기에 참가하여 좋은 경험으로 삼았다. 특히 생산현장을 돌아보는 게 부척 뜻 깊었으나 단순히 과거 투쟁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는 '히전' 하며 꼭 현실과 미래에 대한 교육을 곁들여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여름휴가 때까지 필요한 자료, 증인과 안내자, 저녁 강의를 맡아줄 강사를 알아보고 나서 8월10일부터 3박4일 동안 사전답사를 거치니 비로소 손에 잡히는 듯 하였다. 기관지 『금속노동자』와 『금속통신』에 홍보를 시작하고 지역부

부 대표자회의에도 꾸준히 안건으로 올렸다.

1진 - 경남과 부산양산 본부 참가단 출발 보름을 남겨놓은 8월25일 우리는 2~7차 교신실 회의를 거치면서 거의 준비를 마쳤다. 참가자가 쓸 모자와 목걸이 형명찰, 현대중공업 콜리엇 투쟁을 담은 액자 사진을 기념품으로 한다는 것까지 정했다. 중앙에서는 답사할 곳에 얽힌 투쟁의 역사를 담은 100쪽짜리 자료와 60여 쪽짜리 강의교재를 준비하느라 막바지 힘을 쏟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는 참가자를 모으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목표는 40명, 조합원수가 많은 경남본부가 30명을 부산양산본부가 10명을 채우기로 하였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여러 달 전 답사 교육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참신하다', '그런 교육이라면 보낼 만 하다'던 단위 노조 대표자들은 막상 때가 되자 엄두를 못냈다. 답사기간이 너무 길다, 노조일정이 겹쳤다, 연월차를 써야 한다, 심지어 3박4일에 6만원 하는 참가비도 구실이 되었다. 제일 큰 문제는 당장 급한 일이 있어도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 하지 못하는 풍토였다. 하지만 관복과 목심을 자랑하는 두 본부 교육일꾼은 '괴가 마르는' 어려움을 거치면서 목표의 80%를 채웠다. 경남본부 26명, 부산양산본부 6명 등 총 32명의 참가단을 조직했다. 이렇게 여섯 달에 걸친 준비 끝에 드디어 9월8일 노동운동답사 교육 제1막을 올렸다.

## 2. 첫날

예정시간 보다 1시간 늦게 출발했다는 '부담'도 잊은 채 '역사의 물결따라 노동의 숨결따라' 현수막을 단 답사 버스는 8일 아침 9시 창원 충혼탑 앞에서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차안을 꽉 채운 조합원들은 저마다 기대가 가득 찬 얼굴로 일정한 내와 소개, '지나친 음주와 도박은 노동자 수치로 알고 절대 안 하겠다'는 내용까지 담긴 '답사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일' 낭독을 끝으로 출정식을 마쳤다. 곧이어 '98년 현대자동차 고용안정투쟁 비디오를 보면서 울산으로 울산으로 달렸다.

진행반은 중앙 교선실장이 총책임을 맡은 가운데 경남본부 김정호 교육부장과 부산양산본부 한정길 교선부장이 하루씩 번갈아 진행을 맡고, 2진 준비를 위해 1진 답사에 참가한 이영아 경기본부 교선부장이 총무를 맡았다.

### 현대자동차 방문

첫 답사는 현대자동차였다. 노조 사무실에서 정갑득 노조 위원장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노조 교선실장과 교육부장 안내로 서둘러 현장라인 순회에 나섰다. 처음 들어간 부서에 자동차 차체를 완성하는 곳이었는데 강판이 차체로 완성되어 도장부로 넘어가기까지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고 기계들만 움직이는 '자동화'의 현장, 과연 이 현실에서 고용문제와 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부서는 콘베어 라인 앞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앞부서 돌 때보다는 왠지 좀 기분이 나아졌다. 수출용 차가 끝도 없이 늘어난 선적 공정을 지나 넓디넓은 회사를 버스로 돌면서 양봉수 동지가 일하던 부서와 분신한 자리, 노조 집회 장소, 지난 해 천막농성 길 등을 안내받으며 노조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자연스럽게 노조의 요즘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임단협과 노조 통합 상황을 중심으로 한 상황설명에 이어 조합비 액수와 적립금,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노조의 준비정도 등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조합원들이 점심을 거의 먹고 난 12시 30분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로 출발했다.

### 현대중공업방문

이 때부터는 금속연맹 천창수 울산본부장이 지난 90년 현대자동차 앞 큰길에서 풀리웃 파업을 진압하러 가는 경찰을 자동차 노동자들이 막고 나서 거리투쟁을 벌였던 길, 87년 남목고개에서 끝도 없이 진군하던 '노동자 군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동구 일대 노동자들이 사는 아파트며 백화점에서 학교까지 '현대왕국'으로 변한 울산의 이모저모를 안내하였다.

현대중공업에 들어서자 회사 관계자와 노조 간부들이 함께 맞아주었다. 문화관

에서 폭신한 소파에 앉아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회사 홍보영화를 본 후 현장 순회 에 나섰다.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조선소 작업현장과 콜리엇, 도크와 LNG선 등 사람에게 따라서는 구경하기 힘든 진귀한 광경을 볼 수 있었으나, 안내를 회사 쪽에서 하니 주로 작업공정과 매출액 등 경영에 대한 내용 중심이었다.

노조 사무실에서 3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노조 간부들과 현대중공업 노조의 지나온 역사와 어려운 현실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참가자들에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참가자들은 현장조직이 몇 개나 되느냐, 대기업노조인데 산별노조가 되면 노조 적립금을 내놓을 수 있는냐는 질문을 던지며 큰 관심을 보였다.

### 서울로

차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서 보지만 현대자동차 투쟁 비디오와 현대중공업 89~90년 파업 비디오를 보며 서울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평일이라 도로는 크게 막히지 않았으나 버스가 속력을 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옥천에서 저녁 먹은 시간을 포함 6시간 30분을 달린 끝에 송실대 사회봉사관에 도착한 시간이 밤 9시 40분.

서둘러 짐을 풀고 첫 강의인 (가칭)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서리 천영세 동지의 '돌아보는 10년 내다보는 10년'에 들어갔다. 새로운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조간부까지 비인간화되는 현실을 뛰어넘어 자기만 아는 '우등생' 기질이 아니라 공동체 삶의 정신을 추구한 열사정신을 본받아야 하며, 교육도 실무력 같은 당장 급한 '구급약'이 아니라 저항력과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과 뼈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인상 깊었다. 밤 11시 늦은 시간이지만 강릉맥주 한 통씩 들고 시작한 조별모임은 서로 인사하고 조장 뽑고 조이를 정하고 하는 사이에 새벽 1시가 되어도 끝날 줄을 몰랐다. 첫날밤은 그렇게 저물어 갔다.

### 3. 둘째 날

#### 전태일의 청계천

노조 간부나 조합원 가운데 상급단체 사무실을 가본 사람이 사실 별로 없다. 답사단은 이튿날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사무실을 들러 사무실을 '구경'하고 고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전재환 금속연맹 사무처장과 간단한 간담회를 열었다. 질문은 주로 남북노동자추진대회와 연맹 재정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지독하게 막히는 청계천 길을 따라 전태일 열사가 몸을 불사른 청계천 6가 평화시장 앞에 다다랐을 때 시장통 담게 주위는 정말 시끌벅적했다. 평화시장 안에서 작은 가게를 하다 달려온 이승철 동지는 29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어난 듯이 생생하게 설명했다. "저 계단 위에서 전태일이 몸에 불을 붙이고 내려와 바로 여

기 봉고차가 서있는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현창 후 전태일이 다시 일어나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고 소리치고 쓰러졌습니다.'

전태일과 함께 삼동친목회를 만들고 전태일이 죽은 뒤 칠계피복노조를 세우고 군사독재와 맞서 구속을 거듭하며 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과정을 설명한 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곳은 노동운동밖에 없다'며 노동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온 몸은 흥분돼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소가 장소인 데다 당시 온 몸으로 전태일과 함께 싸워온 투쟁 당사자의 생생한 증언이 남긴 여운은 결코 짧지 않았다.

#### 마석 모란공원

치안에서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나온 이형숙 동지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에서 나온 김학철 동지가 열사들의 이력과 정신을 설명하는 가운데 어느덧 마석 모란공원으로 들어섰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열사들의 묘역을 돌아봤다. 민족민주열사 추모비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바로 곁에 있는 계훈계 선생 묘역에 국화꽃을 올리면서 시작된 열사묘역 순례는 뒤라고 표현하기 힘든 시간이었다. 참기지에 따라서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열사가 많았겠지만, 산화한 사연을 잘 아는 열사를 만날 때마다 가슴에 묻어둔 몸서리치는 기억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란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에서



전태일기념사업회 제공

까, 속 깊은 곳에서 확 올라오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전태일 열사 묘역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마다 찾아오는 바람에 무덤 앞에 잔디가 자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는 그 사람들 심정을 알 것도 같았다.

"열사정신은 도덕성이요, 견결성입니다. 심지어 자본의 돈을 받고 여자문제로 꼬투리를 잡히는 일까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김학철 동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참가자들에게 인상깊었던 듯 차안에서 운동가의 도덕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다.

#### 갑오농민전쟁의 함성

차가 충청도를 지날 때부터는 역사연구소 박준성 교수의 시간이 되었다. 갑오농민전쟁을 다룬 교육방송 비디오를 곁들인 설명은 동학란, 동학농민혁명, 갑오농민전쟁에 얽힌 '역사는 기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되기도 한다. 그래서 같은 사건은 두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도 다르다'는 점이 인상깊었다. 우금치에 새운 '동학혁명위령탑' 뒷면에 새겨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누군가 돌로 깨 지운 흔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김경숙 열사 묘비에 새겨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름은 언제까지 남아있을는지...

갑오농민전쟁 전적지 전라북도 정읍을 차로 돌아 농민군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백산에 올랐다. 당시 흰옷을 입은 농

민군들이 죽창을 들고 모인 모습을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고 표현해 유명해진 백산... 여기에도 농민군의 뜻을 잘못 기린 기념비가 서 있었다. 농민군들이 자신들이 피땀으로 일군, 그러나 지주와 양반들에게 결실을 모두 빼앗겨야 했던 드넓은 논밭을 바라보며 '세상을 갈아엎자'고 들고일어났던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면서 만석보터에 다다랐을 때는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 칠혹 같은 어둠이 호남평야를 삼켜버린 뒤였다.

#### 민중의 삶

백양사 입구를 지나 담양 신용협동조합 연수원에 짐을 풀고 모이니 어제처럼 밤 10시가 다 되었다. 하지만 박준성 교수가 해돋이 장면을 시작으로 사진과 노래를 곁들여 '슬라이드로 보는 민중의 삶 100년'을 무성영화에 나오는 변사처럼 오후 2시간 동안은 '피곤할 여유'가 없었다. 일제시대에 지금은 이북 땅이 된 을밀대 지붕 위에서 아사단식투쟁을 벌이는 여성노동운동가 강주룡의 모습, 원산 총파업과 해방 후 격변기, 처음 들어보는 50년 전 운동가요들, 한 순간도 눈과 귀를 막을 수가 없었다. 특히 9년 전 맞벌이 노동자 부부의 자매가 잠긴 지하 셋방에서 불에 타 죽은 비참한 사건을 다룬 정태춘 노래가 그림과 함께 온 몸을 붙드는 시간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옛날에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자식을 키우니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인가. 도대체 9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는 노동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줄 생각도 못하고 감동에 젖어' 강의를 다 '보고' 난 참가자들은 비는 내리지, 하루동안 기분은 축축히 젖었지, 몇 병 안되는 소주잔치에 금방 기분이 틀며 시끌벅적한 뒷풀이를 벌였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이른지라 몰래 '복공작전'을 벌여 사은 소주도 압수한 채 서둘러 재워야 하는 '익역'이 정말 싫었던 밤, 그러나 그런 '학동'이 들의 풍채를 똑똑히 따라주는 참가자들의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마웠던 둘째날 밤은 어느새 전라도 산골짜기에 내리는 장대비와 함께 깊어만 갔다.

#### 4. 셋째날

##### 5.18 민중항쟁

노동자들은 아침에 잘도 일어났다. 사흘째 아침 이미 참가자들은 서로 격의 없이 가까워지고 뭔가 보이지 않는 '공감대'가 흐르는 분위기였다. 5.18기념재단에서 만든 다큐 5.18을 보는 사이 어느덧 전남도청 앞에 이르렀다. 80년 5월 당시 전남대 4학년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안종철 전남대 교수가 생생한 증언을 해주었다. 도청 앞에서 벌어진 '민주화대성회' 집회와 계엄군의 무자비한 학살,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도청 최후의 순간까지, 특히 당시에 시민군들이 화순 탄광에서 TNT를 확보

80년 5·18 항쟁의 주역 상징시 동자의 증언 (5·18광주 신묘비)



한기호



해 도청 지하실에 설치해놓고 “만약 계엄군이 도청에 들어오면 TNT를 터뜨려 산화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으나 사복으로 위장한 보안대가 미리 TNT 뇌관을 제거해놓고 쳐들어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곧이어 도청의 협조를 얻어 우리는 전남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항쟁 지도부가 머물던 사무실(지금은 의회 회의실)이며 복도를 둘러보았고 도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당시 상황을 아는 만큼 설명해주는 ‘변화된 광주’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금남로, 충장로를 거쳐 망월묘역에 도착해보니 5.18 때 사망한 열사들은 신묘역으로 모셔서 그 후 잠든 열사들 묘역 앞에서만 묵념을 올리고 국화꽃을 바쳤다. 대우조선에서 분신자살한 박진석, 이상모 동지, 민족시인 김남주, 학생들..., 10여년 가운데 최근 몇 해만 빼고 계속 오는 망월동이지만 왜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는지... 유리상자 안에 있는 이상모 동지 영정에 빗물이 흘러 사진이 상한 게 마음이 아팠다. 노조에 얘기해서 다음 답사 때는 새 영정으로 바꿔야지...

정권이 바뀐 뒤 5.18 사망자들만 따로 모신 망월동 신묘역에 가보니 마음은 더 착잡했다. 4.19 묘역을 뺀치는 거대한 규모에 참배할 때도 안내에 따라 추모 음악에 맞춰 격식을 갖추다 보니 ‘아, 이제사 5.18영령들이 대접 받는구나’ 생각하다가도, 사망 순서대로 비석과 봉분이 똑같

은 크기와 모양으로 문헌 열사들을 보며 어떤 이가 ‘박제화’ 됐다고 했듯 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묘역 입구에서 정향자 동지가 한 시간에 걸쳐 피울음처럼 토해낸 5.18 민중항쟁의 진실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게 했다. “5.18 민중항쟁의 주역은 노동자와 기층민중이었어요. 초기 싸움을 지나 상황이 어려워지자 살만한 사람들은 지는 싸움을 뭐하러 하나며 떠나고, 22일 시민의 힘으로 광주를 탈환했을 때 지도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카톨릭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던 노동자들과 그래도 민주노조활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밤새워 투사회보를 등사기로 밀어 몸빼바지에 숨겨 돌리고, 집단으로 작업복을 입은 채 시위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에 남은 500여명 가운데 다수가 노동자와 기층민중이었습니다.”

80년 5.18 항쟁 당시 29살로 전남제사노조 지부장이었던 정향자 동지는 도청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88년까지 아버지 말고는 항쟁에 참여한 사실을 모를 정도로 철저히 이 사실을 숨기며 살았다. 정향자 동지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도는 가운데 화개장터에서 재첩국으로 점심을 먹고 난 답사단은 어느덧 지리산 대성골에 다다랐다.

야! 지리산

입을 크게 벌린 밤송이를 까느라 정신을 파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아무리 열

심히 산을 올라도 칠순이 훨씬 넘은 빨치산 출신 정운창 노인을 따라잡기는 어려웠다. 대성골 가는 길 어느 메뚜기에서 정운창 선생은 '여그서 잠깐 야그 허지' 하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정 선생은 연도는 물론 날짜까지 대며 당시상황을 설명해나갔다.

"산으로 올라온 1~2만 명 대부분은 공산주의가 뭔지, 이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여. 그저 먹고 살라고 싸운 사람들, 어쩌다 보니 쫓겨온 사람들이지. 결국 여기 대성골을 피바다로 물들이며 죽어갔지" 이 산 저 산을 옮겨다니며 벌였던 '전투'며,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 올랐던 '전과'며, 대성골 최후의 순간, 그리고 남부군 이현상 사령관의 죽음에 얽힌 얘기까지 끝도 없이 이어가는 이야기를 받아 적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시커멓게 탄 칠순의 농사꾼이자 옛 빨치산인 정노인이 50년 전 일을 얘기하다 결국 복받쳐 울음을 터뜨렸을 때, 분단 한국 현대사에 스며 있는 질기디 질긴 한을 보는 듯 했다.

시민군과 빨치산, 정향자와 정운창... 거제로 가는 길은 훤히 뚫려 있었으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차안에서 오늘 하루 소감을 말하는 참가자들도 비슷한 마음인 듯 했다. "광주와 지리산에 묻힌 죽음들,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일입니다", "역사는 지배자의 것이 아니라 민중의 것임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배들 삶을 듣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노조활동 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대우조선노조

올 때마다 아름답고 깨끗하지만 한 거제도, 저녁 해가 누엿누엿 넘어가는 어스름한 해질녘엔 더 고왔다. 사방에 어둠이 짙게 깔려서야 초등학교를 고쳐 가꾼 망치 수련원에 들어섰다.

마지막날 밤, 오죽 피곤할까만은 내일 이면 집에 간다는 생각에 피로를 잊은 듯 했다. 방현석이 『아름다운 저항』에서 아주 정확히 '전국에서 가장 겸손한 노조간부들'이라고 표현했던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이 소주며 맥주며 안주를 몇 상자씩 들고 찾아왔다. 백순환 연맹 부위원장 개인이 겪어온 얘기에 이어 "산별노조 건설 못하면 다 죽습니다" 목이 다 쉴 정도로 열변을 토하면서 마지막 날 강의를 마무리하고 나서, '시간과 분위기 때문'에 조별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뒷풀이에 넘어갔다.

이틀간 술 뺏고 강제로 재운 게 갑자기 미안해져 '마음껏 먹어봐라',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에 멧돼지 고기 구으며 잔치를 시작한 지 20분이나 지났을까, 한 조가 8명이 벌떡 일어나 판을 깨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우리 조가 모든 동지들에게 돌아가면서 잔을 돌리겠습니다." 이때부터 '강제로' 불려나가 목이 찢어져라 노래를 불러야 했던 진행자들을 시작으로 '광란'은 시작됐고, 농민춤 해방춤 기차놀이 강강술래며 운동권 '고전' 놀이가



대우농어로 하나된 마지막날

다 나오고, 결국 새벽 1시에 난데없이 족구대회가 열리면서 분위기는 질경이로 치달았다. 숨이 죽음을 하는지, 발이 죽음을 하는지... 어쨌든 오랜만에 모든 걸 잊고 정말 재미있게 놀아왔다. 아마 시골의 초등학교 폐교였기에 더 분위기에 취했으리라.

### 5. 넷째날

옥포만 새벽 넘어 전노협 승결이

전날 밤 '광란'도 아침 7시 이전에 눈 뜨는 노동자들을 막지는 못했다. 밤이라 보이지 않던 화 트인 바닷가 초등학교 경치를 구경도 할 겸, 여유도 줄 겸 출발시간을 늦췄지만 기념사진까지 다 찍고도 8시40분에 버스는 출발했다.

차안에서 90년 대우조선 클리앙 부경비디오를 보면서 대우조선에 들어섰다. 회사 홍보영화 20분짜리를 보고 나서 노조 신성호 교육부장의 안내로 현장을 돌기 시작했다. "바로 저곳이 최대업 열사

가 분신자살한 곳입니다. 당시 노조가 정말 어려울 때였죠". "이 곳은 대우조선 노조에서 최강의 투쟁력을 자랑하는 부서입니다. 올해 4월 매각반대 투쟁도 이 부서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퀴가 96개 달린 클리앙 위에서 부경할 때가 참 좋았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넓은지 자건거 타고 운동했으니까요. 지금은 회사가 현장을 장악해서 무척 어렵습니다. 그만큼 노조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집회 한번 하려면 한 달을 준비합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니 그래도 버티는 거지요."

이미 첫날 현대중공업을 볼 때, 배만 드는 공정을 훑어봐서 관심이 노조활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쏠려있기도 했지만, 안내를 받은 교육부장이 워낙 대우조선 노조 역사를 줄여놓은 듯 설명을 잘해서 느낌도 팍팍 와 닿았다. 현장을 다 돌고 나서 대의원회의실에서 나양주 노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석규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옥포 관광호텔 앞을

끝으로 거제도 답사를 마치고 창원으로 향했다.

### 마창노련

고성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차안에서 전노협 6년사를 담은 비디오를 보며 도착한 창원대로. 김정호 경남본부 교육부장이 수출자유지역이며 창원공단에 얽힌 마창투쟁 15년을 알기 쉽게 줄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당시 세신실업에 구사대가 쳐들어온 것을 계기로 폭발한 전노협 마창노련의 창원대로 투쟁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엄청나고 대단한 투쟁이었다.

노동운동사, 특히 87년 이후 투쟁을 살펴보면 아무리 치열한 투쟁이라도 대부분 자기 회사 자기 노조의 문제로 터진 싸움이였다. 대신 마산창원지역 투쟁의 특징은 연대투쟁이다. 89년 열흘에 걸쳐 1~2만여 노동자들이 날마다 드럼통을 굴리고, 타이어에 불을 붙여 바리케이트를 쌓으며, 치열하게 거리투쟁을 벌인 '창원대로 투쟁'도 자기 노조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다른 노조를 지키기 위한 연대투쟁이었다.

참가자 대부분이 마산창원 동지들이어서 잘 알고 있는 역사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투쟁에 비해 비디오 자료나 답사일정이 좀 미진한 생각이 들어 2진부터는 꼭 보완하자는 얘기를 나누며 양산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제 박창수·조수원·양봉수·최대림 열사 등 유난히 급속 조합

원들이 많이 잠들어 있는 솔밭산 묘역으로 간다. 차안에서 조수원 동지의 삶과 죽음을 다룬 노동영화 '해고자'를 보는 동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여기저기서 고개를 창밖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노협을 지키기 위해 병역특례 노동자의 신분으로 투쟁에 앞장섰다가 끝내 목숨을 던져 동료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대우정밀 노조도 다시 살려낸 사람 조수원. 아! 이 나라 어디를 가도 목숨까지 바치며 노조를 지키고 노동운동을 지켜온 선배열사들의 발자취는 끝날 줄을 모르는구나...

솔밭산 묘역에는 대우정밀노조와 한진중공업노조, 부산경남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회 동지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분 한분 열사들 묘역을 찾아 소주를 따르고 꽃을 바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연을 공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창수 조수원 동지를 뵈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단식을 여는 데 동지들을 살펴보니 무척 피곤한 상태였다. 여성 동지들은 주저앉기까지 했다. 서둘러 해단식을 열었다. 몇몇 동지들이 나와 소감과 앞으로 결의를 밝히고, 기념품을 나눠주고, 모든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손을 잡고 '고생 많았다'며 인사를 나누고 모든 답사 교육을 마무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지들을 배웅하고 나니 피로가 한 순간에 몰려오면서 진이 다 빠지는 듯 했다. 부산으로 가는 봉고를 얻어 탔는데 함께 탄 참가자 한 사람

이 계속 소주를 권하는 바람에 몇 잔 들  
이켰더니 더 나른해지는 듯 했다. 몸이  
그래선지 마음도 종잡을 수 없이 오락가  
락했다. 서울에 다다를 때까지 뿌듯하기  
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게  
기분이 이상했다.

## 5. 살아 숨쉬는 가슴 뭉클한 현장교육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했다. 하나는 참  
가자들이 직접 써낸 평가서를 종합한 평  
가고, 다른 하나는 이걸 바탕으로 전국  
교선실회의에서 종합한 평가다. 두 평가  
내용을 요약해서 실는다.

### 1) 답사 교육 참가자들의 평가

답사 참가자들의 평가는 소감문 형식  
의 평가서를 참가자들이 직접 써내는 방  
법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평가서를 낸 사람 29명인데 대부분 깨알  
같은 글씨로 꼭 차 있어 어떤 식으로든  
답사 교육을 마치고 '할 말이 많은 듯' 한  
느낌을 주었다.

#### ① 전체 소감

답사 교육 전체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  
문에 참가자 거의 모두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는 살아 숨쉬는 교육이었다' 고  
평가하였다. 이번 답사의 의미에 대해서  
는 먼저 산화화신 선배열사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열사들의  
뜻과 정신을 되새겼으며, 광주와 빨치산

에 얽힌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  
다는 데 대부분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  
이런 '느낌' 이 현재 어려움에 처한 자신  
과 노동운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힘  
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과 결의를 밝  
혔다.

받아보지 못한 새로운 교육, 체험식 교  
육, 여러 가지가 생각나게 하는 교육, 주  
입식 교육 열 번 보다 남는 게 많은 교육  
으로 교육방법이 새로웠다는 점도 중요  
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동  
지들을 만나 동지애를 나눌 수 있었으며,  
답사 교육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이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도 여럿 나  
왔다. 전체 소감을 분석해보면 이번 답사  
교육에 대해 참가자들은 꽤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좋았던 점

참가자들은 강의 '슬라이드로 보는 민  
중의 삶 100년' (18명)과 '전태일·모란  
공원 답사' (16명)를 단연 인상 깊었던 기  
억으로 꼽았고, '5.18 민중항쟁' (11명)  
과 '지리산 둘러보기' (11명) 그리고 '강  
의 선배노동자' 에게 듣는다(9명) , 강의  
'돌아보는 10년 내다보는 10년' (5명) 순  
으로 좋았다고 평가했다.

강의 '슬라이드...' 는 박준성 교수가 갑  
오농민전쟁 안내와 설명까지 담당하면서  
그 전체에 대한 평가 성격이 담긴 데다  
사진과 노래를 이용해서 노동자·민중의  
삶과 투쟁을 감성으로 접근해 짚어주어

좋은 인상을 주었다. 빨치산·전태일·광주시민군·노동열사들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면서 참가자들은 많은 감동을 받았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고 있다. '청계천 평화시장 분신장소를 둘러보면서 과연 우리 후배들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전태일과 같이 활동한 분의 생생한 증언, 아직도 그 눈빛이 선명하다', '열사들의 모역을 보고 마음에 와 닿는 교육, 살아있는 교육을 체험했다', '지리산 대성골의 한 맺힌 역사, 민중들의 열정에 찬 투사의 길, 생생한 증언, 온 몸으로 감동', '역사는 지배자의 것이 아니라 민중의 것이라는 지리산의 외침', '광주민중항쟁 당시 체험자와의 자리', '전남도청 사수 투쟁기' 등등.

현장방문 자체가 좋았다(3), 현대중공업(3), 현대자동차(3), 대우조선(2), 마산창원(1) 등 현장답사, 상급단체 방문(2), 갑오농민전쟁(2), 투쟁 비디오 보기(2)도 소수이지만 좋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③ 아쉬웠던 점

답사일정이 너무 빡빡했다는 총론에 참가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시간에 쫓겨 답사할 곳을 충분히 둘러보지 못했다(18명), 토론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못내 아쉬웠다(15명),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쉴 틈이 없고 피곤하다(7명), 시간이 자꾸 늦어져 계획한 일정이 어긋났다(7)는 순서로 나왔다.

날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갑오농민전쟁 황토현 기념관을 놓치고, 지리산에서 대성골 전투 현장 등 좀 더 자세하게 둘러보지 못한 점과 함께 노조를 방문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으면, 모란공원과 5.18묘역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 아쉬웠다고 안타까워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사에서 다른 동지들은 뭘 느꼈는지 대화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어 너무 아쉽다고 했다.

차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마땅한 대책이 없다(6명), 울산 현장 방문 때 노조운동과 투쟁을 생생히 알 수 있는 안내가 되었으면(6) 하는 아쉬움과 함께 상급단체 방문 때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으면(3명)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3박4일이 너무 짧으니 4박5일로 하자는 사람도 두 명이 나왔다. 마이크 잘 들리게 하자, 묘역 참배할 때 시를 낭송하자, 복장을 통일하자, 아침에 체조하자, 미리 공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 ④ 고칠 점

아쉬웠던 점과 비슷한 맥락에서 토론할 시간을 달라(9명),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반드시 지키는 답사 교육을 하자(6명), 너무 피곤하지 않게 하자(6명),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교육을 하자(4명)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울러 현장방문이 모두 대기업이니 하나를 빼더라도 중소기업이나 투쟁 현장을 방문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 2) 교선실 회의 종합평가

1진 답사 교육을 마치고 나서 9월16일 교선실은 전국 교선실회의를 열고 참가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토론을 벌여 그 결과를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하였다.

### ① 답사교육과 조직과정 평가

소감문에서 참가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노조 활동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단한 간부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교육방법으로 자신 있게 밀고 나갈만하다는 게 증명되었다. 특히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직접 노동운동 민중운동과 관련된 현장을 돌아보고 당시 투쟁에 직접 참가한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방식과 슬라이드와 노래테잎을 이용한 교육 방식은 참가한 간부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2진부터 자신 있게 조직하고 이후 답사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조건(예산)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사실 막상 3박4일 끝나고 모두들 감동스러워 하지만, 1진 32명을 모집하기까지 지역 교육담당자들은 피가 말라야 했다. 우선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이번 교육이 왜 필요한지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3박4일 일정의 부담 때문에 조직이 쉽지 않았다.

### ② 답사대상 평가

참가자들에게 전태일, 5.18 민중항쟁,

지리산, 모란공원, 망월묘역, 솔밭산묘역은 모두 인상깊게 자리잡고 있어 계속 이어가면 되겠다. 갑오농민전쟁과 창원대로 투쟁 현장은 중요함에 비추어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되어 아쉬움으로 남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현장 방문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노조운동 관점에서 안내해야 효과가 있다. 상급단체를 방문할 때 의무금 문제나 남북축구대회같은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전국 중앙본부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상급단체의 역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

### ③ 진행과정 평가

일정이 너무 빡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군데군데 아까운 시간을 줄여야 한다. 2진부터는 계절이 바뀌어 해가 더 빨리 뜨고 질 것이므로 현실에 맞는 계획 아래 저녁 토론시간을 꼭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1진 답사에서 나온 시간은 거의 실제 걸리는 시간이니 이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짜고, 되도록 그대로 지켜야 한다. 저녁 강의 가운데 '슬라이드로 보는 민중의 삶 100년'은 마무리 장면에 '금속' 더 나아가서는 '참가지역과 노조'를 포함하도록 2진부터 슬라이드 필름을 보완한다. 이번 '슬라이드...'를 거울삼아 현장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운동역사 교육 과목으로 초점을 정확히 잡고 비슷한 방식을 활용하되, 내용

또한 깊이 있게 담는 문제를 답사 교육과는 다른 차원에서 연구해봄직 하다. '돌아보는 10년 내다보는 10년'은 애초 기획대로 노동운동 10년을 총괄평가하고 산별노조·정치세력화·현장조직력 강화 등 당면과제를 분명히 짚을 수 있도록 채워야 한다. '선배 노동자에게 듣는다'는 개인이 노동운동해온 과정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참가자들에게 가치관과 인생관, 철학을 세울 수 있는 강의로 정확히 잡아야 한다.

자료집은 1주일 전에 참가자에게 나눠 주고 갑오농민전쟁은 다른 주제에 비해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니 쉽게 풀어쓴 내용으로 대체하고, 노동열사들이 산화하게 된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담는다. 차에서 비디오 볼 때 뒤에서는 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데 대책이 마땅치 않다. 자리라도 바꿔 공평하게 보게 해야 한다. 지루한 느낌을 주는 현대중공업 투쟁 비디오와 갑오농민전쟁은 다른 대안을 찾고 마창노련 투쟁 비디오는 꼭 확보

한다. 진행반에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작은 문제지만 저녁 강의 때 강의 제목이나 칠판을 준비 못해 허전했다. 이튿날부터는 해결했지만 첫날은 조를 짜지 못하고 출발하다 보니 인원점검이 제 때 안 돼 모이고 출발하는 시간이 늦어져 운전 기사도 짜증내고 시간도 늦어졌다. 다음에도 첫날은 조를 짜기가 어려울 텐데 대책이 필요하다. 1진 답사를 해보니 사무처 동지들에게도 무척 좋은 교육이다. 자리가 남는 만큼은 업무 때문에 어렵더라도 중앙과 지역 사무처 동지들에게도 꼭 기회를 주도록 하자.

금속연맹은 10월6일부터 2진 답사 교육을 떠난다. 또 10월 넷째 주와 11월 두 차례 등 하반기에 모두 다섯 차례를 계획하고 있다. 2진부터는 1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여 더 현실에 맞고 효과있는 좋은 교육이 되길 기대하며, 하반기를 마무리할 때엔 더 영근 알곡으로 꼭 채운 보고서를 낼 수 있길 바란다. ❖